

#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첫발

### 전주시,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2025년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조성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한민족의 전통문화를 연구, 전시, 체험할 수 있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전주시는 21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용역은 전북연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수행했다.



전주시는 21일 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은 오는 2025년까지 전주종합경기장 야구장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7480㎡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부지 비용을 포함해 약 376억 원으로 추정됐다.

전북연구원은 남·북한 주민과 재외 동포를 아우르는 한민족 전통문화를 ICT를 활용한 디지털 문화뉴딜을 통해 실감콘텐츠로 현재화해 기존의 아날로그와 새로운 디지털이 결합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물 내부에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제작지원실 △콘텐츠 테스트베드 △콘텐츠 체험·전시실 △콘텐츠 라이브 극장 △콘텐츠 라이브러리 등이 들어선다.

전북연구원이 용역 추진 과정에서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시설 건립 필요성과 이용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0.4%가 '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67.2%는 '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향후 시설 수요예측과 관련해서는 방문객은 연간 15만5,017명에 달할 것으로, 운영비는 연 평균 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연 평균 약 4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6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8명의 취업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한민족의 원형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실감 콘텐츠로 구현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독보적인 복합문화공간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이곳이 한민족의 세계화를 이끌고, 전주의 문화영토를 세계로 넓히는 핵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급 관한 조례안 통과

### 시의회 상임위원회... 25일 3차 본회의 거쳐 최종 확정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대표 발의·제안 설명

전주시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전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 회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88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동화 의장

해당 조례안은 지난 16일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전북, 인후1·2, 금암1·2동)이 대표 발의했다. 강 의장은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해당 조례

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분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김원주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주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자 등이며, 지급 기준일은 조례와 추경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 발표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준공

전주시 중화산동 예수병원 인근에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이 들어섰다.

전북기독교성지화사업추진협의회(이사장 원팔연 목사, 이하 협의회)는 21일 예수병원 인근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백종현 문화체육관광부 중무관, 김중술 전라북도기독교총연합회장, 원팔연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관 준공 감사예배를 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준공을 기념하는 감사예배에 이어 사업경과 보고,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국비 등 총 8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된 이 기념관은 1156㎡ 부지에 지하 2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됐다. 2층 전시관에는 미국 남장로교 소속 7인 선교사가 조선에 오게 된 배경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시대 전주 기독교인의 활약상을 주제로 한 영상 콘텐츠 및 체험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층 의학박물관에는 △마티 임폴드의 왕진사진 △방광내시경 △요도확장기 △안과수술도구 △중앙심부치료 기록지 등 지난 2009년 문화재청의 근대문화유산 의료분야 목록에 등재된 5가지 유물과 소장품 150여 점이 전시된다.

/김윤상 기자

## '친환경 복합문화공간'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 전주시, 7월까지 옛 남부시장 원예농협 건물 1층에 조성

기능을 잃고 방치된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이 전북 특산품을 판매하는 공동판매장이자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오는 7월까지 옛 남부시장 원예농협 건물 1층(완산구 종남문1길 9-5)을 남부시장 공동판매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사업은 2017~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23억 원 등 총

64억 원이 투입돼 △전라북도 특산물을 판매하는 공간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매장 △식음료 판매 공간 △공연장 등을 갖춘 전통시장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시는 남부시장 공동판매장을 우수 특산물 판매하는 장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할 기관도 공개모집 과정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공동판매장을 운영할 수탁기관은 제로웨이스트 등 2050 탄소중립 실천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21일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예정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합쓰는 동시에 최소 10개 이상의 전북 특산품을 전시·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공연·체험 등 남부시장 활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게 된다.

이 건물 2층에는 '2022년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총 24억 원이 투입돼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가칭)'이 조성된다.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에는 △개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스튜디오 △서브컬처 장르의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는 디지털·기획 전시장 △교육시설 △외행사 공간 △열린 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공동판매장 조성 예정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통시장 내 방치된 공간이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공간이자 쓰레기 배출이 없는 매장, 시장상인과 방문객, 여행자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면서 "이 공간이 전주한옥마을과 풍남문, 서학동예술마을 등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탄소중립도시 실현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SG 가치 실현 협력

전주시가 저탄소 식생활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과 의사결정 시 환경과 사회 책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을 위해 양자서기로 했다.

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21일 전주시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춘진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탄소 식생활 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 자리에서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추진 및 홍보 등 ESG 가치 실현 △로컬푸드 등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상생 실현 △탄소 저감을 위해 국산 밀, 콩 등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학교급식 등 사용 노력 △기후위기 인식 개선과 탄소중립 생활실천 촉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특히 시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제로)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65만 전주 시민들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에 적극 참여해 식생활에서도 탄소 절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는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를 위해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이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대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 기관은 또 탄소 저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소비를 촉진시키고, 전주푸드 등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 전주매일 금연캠페인